

한국사회에 미친 기독교의 영향력 연구

- 현대소설에 투영된 모습을 중심으로 -

기 애 도 (숭실대 문학박사)(3-3)

논문 초록

기독교(개신교)가 이 땅에 정착한지도 120여년의 시간이 흘렀다. 이 기간동안 우리 사회는 개화기에서 근대로, 다시 현대로 넘어오는 문화적 충격과 식민지와 전쟁을 통과하면서 분단국가로 자리매김된 상황에서 군부 정권을 넘어 민주화를 이룬 정치적 발전을 이루었고,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를 거쳐 글로벌 체계로의 경제적 부흥을 이루어왔다. 본 연구는 우리사회에서 개화기와 함께 시작된 기독교회의 영향력이 우리 사회의 발전에 미친 영향을 현대 소설에 투영된 모습 안에서 고찰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먼저 한국 최초의 장편소설인 <무정>에 나타난 근대에서 현대로의 이행기를 주도하는 기독교적 윤리의식을 살펴보고, <삼대>와 <상록수>에서 식민지의 수난에 항거한 기독교회의 희생과 농촌 계몽의 현장을, <내 잔이 넘치나이다>에서 6.25의 참상을 맞이하여 이유 없는 고난의 의미를 통찰하는 기독교적 영성을 살펴보고, <베데스다>에서 1960-1970년대 경제부흥의 시발점이 된 새마을 운동의 정신적 주체가 기독교 정신에서 비롯됨을 발견할 수 있었고, <에릭직톤의 초상>에서 1970-1980년대 민주화 운동의 산실이자 피난처가 기독교회였음도 찾아낼 수 있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민족은 기독교인들의 헌신과 희생을 발판삼아 식민지를 건널 수 있었고, 사상 초유의 동족전쟁이 가져온 열패감을 기독교적 영성을 통하여 선민으로서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교회의 정체성을 지켜냈다. 또한 가난한 농군을 제창함으로서 새마을 운동을 전파하고 피폐해진 농촌사회를 이끄는 정신적 지주가 됨으로서 민족의 영성에 기독교적 세계관을 이식하였고 그 결과 경제적 부흥과 함께 급격한 교세의 성장을 이루어 내었다. 나아가 압제로부터의 해방을 선언하는 기독교 정신으로 이 땅의 청년들에게 자유혼을 불어넣음으로서 군부 독재를 종식시키는 중심적 역할을 담당했다. 따라서 한국 사회의 발전과 변혁의 고비마다 기독교적 영성에 의거한 교회 공동체의 희생과 헌신, 윤리적 지도력에 절대적으로 의지해 왔음이 본고의 연구, 한국 현대소설 속에 투영된 모습을 통해서도 충분히 입증되어지고 있다.

주제어 : <무정>, <삼대>, <상록수>, <내 잔이 넘치나이다>, <베데스다>, <에릭직톤의 초상>

I. 서론

II. 본론

1. 근대에서 현대로의 안내 : <무정>에 나타난 윤리적 지도력
2. 식민지 시대의 등불 : <삼대>.<상록수>에 나타난 교회의 희생과 헌신
3. 6.25 전쟁과 선민의식 : <내 잔이 넘치나이다>에 나타난 기독교의 영성
4. 경제부흥의 시발점 : <베데스다>에 나타난 가나안 농군학교의 정신
5. 민주화 운동의 산실. 피난처 : <에릭직톤의 초상>에 나타난 교회의 역할

III. 결론

1. 서론

문학과 종교는 불가분의 관계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데 보편적 효용가치와는 다른 관점으로 사회와 역사를 탐색하며 땅의 가치나 지배이데올로기를 모두 성찰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현길언, 2002. 22)에서 기독교적 세계인식과 통한다. 특히 소설은 발전하는 사회적 현상의 결과물이자 인간 본질에 대한 새로운 각도의 분석이므로 ‘인간과 가장 밀착된 예술 형태’(한승옥, 1995. 9)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표면적인 사회 현상뿐만 아니라 저변을 주장하는 내면적인 흐름을 그려내면서 표현 양식으로서의 소설이 언어 탐구를 통해 대상으로서의 종교 행위를 설명하기 때문이다.

한국 현대소설에는 우리 사회가 겪어온 100여년의 사회상을 담고 있으며 또한 민족 변혁기에 미친 기독교의 영향력이 강하게 투영되어 있다. 따라서 본고의 목적은 식민지와 전쟁, 그리고 산업사회와 민주화 시대를 일관되게 관통하는 기독교의 영향력을 소설적 사회상에 투영된 부분을 집중하여 조명해 보고자한다.

먼저 근대에서 현대로 넘어가는 1910년대 사회상이 잘 드러난 대표적인 장편소설 <무정>을 통하여 기독교의 사회 윤리적 영향력을 유추해보겠다. 두 번째, 1920-1930년대 식민지를 살아가는 지식인이 선택한 두 부류의 삶이 그려진 <삼대>와 <상록수>를 통하여 기독교 공동체가 선택한 민족을 향한 고난과 헌신을 살펴보겠다. 셋째, 6.25전쟁이라는 민족 최대의 불행한 사건을 그린 <내 잔이 넘치나이다>를 통하여 기독교적 사랑의 실천과 영성으로 재해석한 국제 전쟁의 의미를 밝혀보겠다 넷째, 1960-1970년대 산업사회로의 전환기에 경제 부흥의 정신적 지주가 된 새마을 운동의 시발점이 기독교 정신에서 출발함을 <베데스다>에 투영된 기독교회의 모습에서 찾아보겠다. 마지막으로 <에릭직톤의 초상>에 투영된 교회의 두 가지 방향 선택의 모습에서 1970-1980년대 민주화 운동의 저변에 기독교적 자유와 진리수호의 실천 정신이 발휘되었을 살펴보겠다.

II. 본론

1. 근대에서 현대로의 안내 : <무정>에 나타난 윤리적 지도력

한국 근·현대소설은 고소설과 개화기 단편소설¹⁾의 시대를 지나 3.1운동 이전의 개화 과도기 소설인 <무정>(1917)에서 시작된다. 따라서 개화기에서 근대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견되는 당대 사회상을 대표적인 개화, 개량주의자인 이광수가 관찰자적 시선으로 묘사한 최초의 장편소설이다.

전체 줄거리는 경성학교 영어교사인 남주인공 이형식이 과거 은인이었던 박진사의 딸 기생 영채와 개화 유력인사인 김장로의 딸 선형사이에서 방황하는 삼각 연애관계를 그리고 있다. 서사의 주요 인물은 형식과 선형, 영채와 병욱인데 이들 사이의 관계를 서사로 연결해보면, 형식은 스승인 박진사의 딸 영채와의 혼인의무와 새롭게 등장한 선형사이에서 고민하다 선형을 선택한다. 선형은 부친의 권고로 형식과 약혼하고 유학을 준비한다. 영채는 형식의 약혼과 자신의 정절 훼손의 충격으로 자살을 시도하다 병욱에게 구원받는다. 병욱은 영채에게 기독교적 사고체계를 전수하면서 민족을 위한 지도자의 꿈을 제시한다. 결국 이들 4인은 모두 유학을 다녀온 후 사회의 각 영역에서 지도력을 발휘하게 된다.

주인공 형식이 과거 약혼자 영채 대신 선형과 혼인하여 유학을 떠나는 소설의 결말은 우리 사회에서 기존의 유교적 사상체계가 붕괴하면서 새롭게 지도층으로 부상하는 (기독교적)근대 서구 사상체제로의 이입을 상징한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소설에 표현된 등장인물의 언행을 통하여 유교적 사고체계를 대신하여 당대의 사회상을 이끌어간 기독교적 윤리가 보여주는 지도력을 살펴보자.

서사에서 기독교적 사고체계를 강하게 투영하고 있는 인물은 선형의 아버지인 김장로와 영채를 구원한 병욱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김장로를 살펴보자면, 다음 인용은 김장로가 자신이 배우고 자란 유교적 사상체계를 버리고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꾼 것이 잘 드러나는 부분이다.

(1)양반의 가문에 기생 정실이 망령이어나와, 김 장로가 예수를 믿은 후로 첩 뎌를 후회 하나 자녀까지 낳고 십여 년 동거하던 자를 버림도 도리에 그르다하여 매우 양심에 괴롭게 지내다가, 행인지 불행인지 정실이 별세하므로 재취하라는 일가와 봉우의 권유함도 물리치고 단연히 이 부인을 정실로 삼았음이라. (p.18)

1) 1910년을 전후로 발표된 개화기 단편소설에서 기독교 소설은 대략 20여 편이 언급된다. 그중 기독교적 색채가 두드러진 작품은 <몽조> <경세종> <성산명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 최병현의 <성산명경>은 유교, 불교, 기독교의 차이를 제시하고 기독교적 담론을 구체화한 첫 시도라고 볼 수 있다.

(2)장로는 형식과 선형을 번갈아 돌아보더니 목사를 향하여, “어찌하면 좋을 까요?”한다. 아직 신식으로 혼인을 하여 본 경험이 없는 장로는 실로 어찌하면 좋을지를 모른다. 물론 목사도 알 까닭이 없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 모른다 할 수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인류에 대사를 의논하는 터인데 위선 하나님께 기도를 올립시다”하고 고개를 숙인다. 다른 사람들도 다 고개를 숙이고 손을 무릎위에 얹었다. 목사는 정신을 모으려는지 한참 잠잠하더니 극히 정성스럽고 경건한 목소리로, 처음에는 들릴락말락하다가 차차 크게,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며, 사랑이 많으사 저희 죄인 무리를 항상 사랑하시는, 하늘 위에 계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시여”하고 우선 하느님을 찾은 뒤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공로를 의지하여 비옵나이다. 아멘”하고도 한참이나 그대로 있다가 남들이 다 고개를 든 위에야 가만가만히 고개를 든다. 목사는 두 사람을 위하여 정성껏 기도한 것이다. 다른 사람들도 정성껏 아멘을 불렀다.(중략)장로는 어떻게 말을 해야 좋을지 모르는 모양으로 오른손으로 테이블을 툭툭 치더니 부인에게 먼저 말하는 것이 옳으리라 하여 양반스럽게 느릿느릿한 목소리로, “여보, 내가 형식 씨에게 약혼을 청하였더니 형식 씨가 승낙을 하셨소. 부인의 생각에는 어떠시오?”하고는 자기가 경위있게, 신식답게 말한 것을 스스로 만족하여 하며 부인을 본다. 부인은 아까 둘이 서로 의논한 것을 새삼스럽게 또 묻는 것이 우습다 하면서도 무엇이나 신식은 다 이러하거니 하여, 부끄러운 듯이 잠깐 몸을 움직이고는 고개를 숙이며, “감사합니다”하였다. “그러면 부인께서도 동의하신단 말씀이로루려.” “네”하고 부인은 고개를 들어 맞은편 벽에 걸린 그림을 본다. (pp.252-253)

(1)은 김장로가 본부인이 죽자 재취하지 않고 첩을 본부인으로 승차시킨 사실을 묘사한 것이고 (2)는 김장로가 딸 선형의 혼사를 결정하는 모습이다. 두 상황 모두 기존 유교적 체계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상황이 실현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김장로의 태도는 혼인이라는 인륜대사(人倫大事)를 가문과 가문의 결합으로 여기는 유교적 관점에서 혼인 당사자의 결합으로 여기는 기독교적 관점으로 바뀐 것을 말한다. 사회적으로 적자(嫡子)와 서자(庶子)가 명확했던 수직적 유교 서열체제에서 “재취하라는 일가와 봉우의 권유”를 물리치고 첩을 본실로 앉힌다는 것은 자녀까지 낳고 십 여년 동거하던 자를 차마 버리지 못한 기독교적 양심의 실현이자,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는 기독교적 사고체계의 윤리적 결단이기 때문이다.

위 인용에서 나타나듯이 기독교적 혼인예식을 집전하는 방법은 혼주인 김장로는 물론이고 주재해야 하는 목사까지도 처음 치르는 낯선 예식이어서 당황한 모습이 역력하다. 과거 유교적 윤리에서라면 자녀의 혼사는 전적으로 아버지가 결정한다. 그러나 기독교인이 된 김장로는 당연한 가부장의 권리를 포기하고 목사의 입회 아래 당사자들의 의사를 묻

고 있다. 게다가 부인에게도 비록 어색하긴 하지만 동의를 구하는 형식까지 치르고 있다. 부인도 남편처럼 어색하기는 마찬가지지만 ‘네’하고 대답하면서 맞은 편 벽의 그림(聖畵)을 본다. 하나님 앞에서 대답한다는 신앙적 모습이다. 그 결과 그들은 인륜대사에 앞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믿음에 합의하고 목사는 ‘정성껏’ 두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도 정성껏 아멘을 불렀다.”

김장로는 개화 1세대로서 “일찍 국장도 지내고 감사도 지낸 양반”으로 미국 공사로 부임하여 문물을 접한 적도 있는 “예수교회 중에 재산가로 두 셋에 꼽히는 사람”으로 설정되었다. 그런데 이 인물의 설정은 신문연재라는 특성과 작가인 이광수가 지닌 사회적 영향력으로 인해 개화기적 현실에서 교회 공동체와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막강할 수밖에 없었다.²⁾

두 번째, 기독교적 가치관이 강하게 투영된 인물은 병욱이다. 그녀는 영채의 정신적 스승이며 죽음의 길에서 구하여 미래를 설계해주고 실제적 보호자가 되어 준 밝고 진취적인 여성이다. 그녀의 모습은 성경의 ‘선한 사마리아인’(누가복음 10:30-35)을 연상시킨다.

(병욱이 영채를 향하여) “흥, 그 삼종지도라는 것이 여러 천 년간, 여러 천만 여자를 죽이고, 또 여러 천만 남자를 불행하게 하였어요. 그 원수에 그자 몇 자가, 흥.” “그러면 삼종지도가 그르단 말씀이야요?”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자식의 도리겠지요. 지아비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아내의 도리겠지요. 그러나 부모의 말보다도 자식의 일생이, 지아비의 말보다도 아내의 일생이 더 중하지 아니할까요? 다른 사람의 뜻을 위하여 제 일생을 결정하는 것은 저를 죽임이외다. 그야말로 인도(人道)의 죄라 합니다. 더구나 부사종자(夫死從子)라는 말은 참 남자의 포학을 포함이외다. 여자의 인격을 무시하는 말이외다. 어머니는 아들을 가르치고 지배함이 마땅하외다. 어머니가 자식에게 복종하는 그런 비리가 어디 있어요” 하고 여학생의 얼굴이 붉게 되며 기운을 내어 구도덕(舊道德)을 공격하더니, “영채 씨도 이러한 낡은 사상에 중이 되어서 지금껏 속절없는 괴로움을 맛보셨습니다. 그 속박을 끊으시오. 그 꿈을 깨시오. 저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 되시오. 자유를 얻으시오!”하는 여학생의 얼굴에는 아주 엄숙한 빛이 보인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요?” (중략) “이제부터는 제.....뜻.....때.....로.....살아간단 말이야요.”(pp.275-276)

위 두 사람의 대화는 유교와 기독교적 가치관의 충돌이자 개화기 사상을 집약적으로 나타낸 말이라고 할 수 있다. 유교적 가치관에서 자란 영채에게 ‘삼종지도’를 버리고 “제 뜻대로 살아가야한다”는 병욱의 말은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선고’이다. 전통 유교의 가치

2) 『무정』은 《매일신보》에 1917년 1월1일부터 동년 6월 14일까지 126회 연재되었는데 서울 온 장안이 이 소설의 대한 화제로 들끓었으며 신문을 사기 위해 20리길을 달려가는 일은 보통이었다.(한승옥, 2002: 567) 이하 본문의 인용쪽수는 텍스트의 쪽수임.

체제에서 고통 받는 약자, 특히 여성에게 기독교가 들려주는 해방의 말이며 눌린 자에게 자유를 허락한 선언적 의미이다. 실제 소설 밖의 개화기적 환경은 병욱이 영채에게 ‘눌린 자에게 해방을’ 선언한 것처럼 실제의 개신교는 유교체제에 눌러 살아온 소외계층 특히 여성들에게 기독교적 해방을 선언함으로써 폭발적 부흥시대를 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독교적 가치관이 강렬히 투영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이 소설 속에는 세 부류의 가정이 묘사되는데 하나는 전형적 유교 가정인 영채의 집이고 다른 하나는 기독교인인 선형의 집, (기독교인이라는 직접적 표현은 없으나) 기독교적 가치로 살아가는 병욱의 집이 세 번째 부류이다. 영채의 불행이 구한말 조선 조 애국 선비의 집에 닥친 불행을 보여준다면 선형의 집은 개화문명과 기독교신앙을 받아들인 양반 고위층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에 비해 병욱의 집은 중인 중산층으로 소박한 유교적 가치를 간직했으면서도 진취적이고 따뜻하여 바람직한 기독교인의 가정을 표상한다고 볼 수 있다. 작가 이광수가 따뜻한 시선으로 묘사한 것은 병욱의 가정이다.

병욱의 오라비인 병국은 형식과 동경 유학을 함께 한 친구사인데 그는 열두 살에 열일곱 먹은 아내와 혼인하였으나 내외간에 정이 없다. 그러나 당시 유학생들이 조혼한 아내를 버리고 신여성과 재혼하거나 연애지상주의에 빠져 있을 때 “한번 부부가 된 이상에는 죽을 때까지 서로 사랑할 의무가 있다”는 예수교적 결혼관을 실천하며 ‘술도 아니 먹고 계집은 무론 곁에 가지도 아니’ 하였다. 그가 영채를 만난 후 형식에게 보낸 편지에는 다음과 같은 마음의 갈등이 나타난다.

아내를 사랑하려고 있는 힘을 다하건마는 힘을 쓰면 쓸수록 더욱 멀어 가오. (중략) 내가 구하는 것은 정신적이라든지 육적이라든지 하는 부분적 사랑이 아니요. 영육을 합한 전인격적 사랑이외다 (p.296)

병국의 예에서 보듯 기독교인에게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감정적 위기가 온다. 그러나 병국은 시부모를 섬기며 어린 자기를 ‘길러 준’ 구식 아내에 대한 의리와 가족간의 갈등을 피하려 영채를 누이동생으로 받아들이는데 이 모습에서 인격적으로 성숙한 기독교인의 절제와 성실함이 드러나고 있다.

영채와 병욱이 서로의 감정을 승화시켜 남녀의 애정에서 가족적 사랑으로 나아가는 모습은 형식과 선형의 감정과 매우 비교되는 부분이면서 보다 성화된 기독교인의 사랑을 보여준다. 따라서 우리나라 최초의 장편소설 <무정>은 근대에서 현대로의 이행 과정을 보여주면서 수직적인 유교사회의 폐해를 지적하고 수평적인 기독교 윤리가 보여주는 지도력을 제시하고 있다.

2. 식민지 시대의 등불 : <삼대>.<상록수>에 투영된 교회의 희생과 헌신

1920-1930년대 기독교계는 일반사회의 매서운 비판 앞에 서는데 그 이유는 (1)일제의 기독교 분열정책에 편승한 선교사들이 친일행위와 타협함으로써 윤리성이 손상되었고 (2) 초월적 신비주의 부흥운동의 대두로 기독교 이단집단이 발생, 사회문제화 되었다. (3)기독교 지도자들의 탈정치 추구로 사회적 영향력을 상실했다.(이상설,1999: 97-100) 그 결과 카프³⁾계열은 물론이고 기독교에 실망한 순수문학 계열 작가들도 기독교인의 윤리적 부정성을 묘사하는데 주력했다.⁴⁾

1925년 카프의 결성 이후 작가들의 성향이 사회주의와 민족주의로 갈라졌을 때 민족 독립운동의 분수령이었던 3.1운동에서의 좌절은 기독교계의 신비주의의 대두와 사회운동 방향을 두 갈래로 나누는 계기가 되었다. 하나는 교회 내부적으로 사경회를 통하여 신앙적 결속과 심리적 안정을 꾀하려는 경향으로 발전하였고 다른 한 방향은 농촌계몽을 통하여 민족의 힘을 기르자는 브나로드 운동이었다.

<삼대>⁵⁾는 순수문학 계열의 염상섭이 식민지 만석꾼 3대를 그리면서 윤리적 파탄자인 파락호 기독교인을 부친으로 설정하여 기독교 사회에 대한 냉소적 시선을 드러낸 소설인데 1920년대 피폐해진 기독교계의 상황을 발견할 수 있다. <상록수>는<삼대>와 달리 민족의 정신을 깨우고 경제적 자립의 힘을 기르자는 기독교 사회운동의 현장을 그린 소설인데 1930년대 브나로드 운동(1931-1935)을 주도한 세력이 YMCA .YWCA등 기독교 사회운동 세력이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⁶⁾ 흔히 농촌소설로 분류되는 <상록수>는 농촌계

3) 조선 프롤레타리아 예술가 동맹(Korea Proletarian Artist Federation) : 20세기 들어 세계적으로 전개된 사회주의 문학운동. 우리나라에서도 1925년 8월 박영희, 김팔봉, 안영석등이 중심이 되어 결성되었다. 1926년 첫 문예지를 냈을 때의 태동 단계가 1927년에는 계급이데올로기에 의한 목적의식이 강조되었다. 1931년을 전후하여 안막, 김남천, 임화 등 초강경파가 전투적 계급주의를 내세우면서 일경의 탄압과 내분 등이 원인이 되어 1935년 5월21일 해산되었다. 카프 작가들에 의해 그려진 기독교인의 모습은 대체로 윤리적으로 부패한 집단으로 설정되는데 김남천의 <대하>와 심훈의 <상록수>는 긍정적인 기독교 지도자상을 제시한 특별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4) 다음 인용은 카프의 대표적 이론가인 임화와 김남천의 글인데 이들의 지령에서 통하여 1920-30년대를 주도한 작가들, 특히 기독교에 적대적인 카프의 성격과 경향과 작가들이 창작에 임하는 태도를 볼 수 있다. -작가 이기영 자신도 물론 회상할 줄 믿는다. 소설연구회가 능률한 발동을 가지고 있을 때에 반 종교에 대한 주제의 내용으로 이기영에게 소설 제작을 명령하였을 때 그 속에서 생산한 <최전도사>라는 작품을! (중략)이 성공한 작품을 나는 작가 이기영의 최고점을 지닌 것이라 믿는다.(김남천,1933: 82-83) -종교는 박해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박해하면 잔뜩 그것에 중독된 민중들에게 도리어 종교적 신앙을 강화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며 오직 반종교적 선전활동 거기에의 조직과 교양을 통하여 그 자멸을 기다리는 것이 가장 정당한 길이 될 것이다.(임화,1933.6: 73.이상설,1999:117 재인용)

5) 1931년 1월부터 9월까지 조선일보에 연재되었는데 한국 신문학사를 통해 대표적인 사실주의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하 본문의 인용은 『염상섭 전집』,4.삼대, 민음사(서울:1987)에 의거한다.

몽운동에 투신한 여주인공의 삶과 죽음 속에 기독교적 담론이 명백히 드러난 소설이며 카프케열의 소설 중 가장 널리 알려진 작품으로 1960년대 영화화되었다.

먼저 <삼대>에 투영된 1920년대 기독교인의 모습을 통하여 한국 교회의 참상을 살펴보자. 이 소설의 서사는 1세대인 전통적인 유교봉건주의자 조부를 둘러싼 인물들, 2세대인 개화기 인물이자 기독교 장로인 부친 상훈을 둘러싼 인물들, 3세대인 근대적 인물 아들 덕기와 그의 친구들에 관한 이야기이다. 유교의 몰락을 상징하는 조부의 죽음과 신흥 세력인 부친의 부패상을 보여주면서 대안으로 떠오른 사회주의 앞에서 선택의 기로에 선 민족주의적 관찰자인 주인공 덕기의 갈등이 주제이다.

특히 소설 속에 설정된 2세대와 3세대는 개화기 기독교인들과 그 자녀들인 근대 기독교인들의 신앙과 삶의 방식이 투영되어 있다. 따라서 1920년대 시대적 상황을 살펴보면 특히 2세대- 덕기의 부친 상훈과 덕기의 친구 병화의 부친, 경애의 부친, 필순의 부친-에 주목해야 하는데 전직 교원으로 사회주의자였던 필순의 부친을 제외하면 세 사람은 전직 목사이거나 현직 장로여서 당대 기독교 지도자들의 삶을 투사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3.1운동이후 기독교인들의 보인 행동 양식과 후일담이 된다.

우선 덕기 부친 조상훈 장로의 경우, 미국 유학을 거친 엘리트 자산가에서 이중인격적인 파락호로 추락하는 모습으로 그려짐으로서 윤리적으로 지탄받는 부패한 기독교인의 대표적 인물로 설정된다. 두 번째 병화 부친(목사)의 경우는 3.1운동 실패와 상관없이 기독교 신앙을 확신하는 인물이다.

그는 동경 유학에서 사회주의자가 되어 돌아온 아들을 향해 “아비 말 안 듣고 신앙도 빠뜨리고 다니는 자식은 어서 되져 버리든지 나가 버리든지 하라”(P44)며 쫓아내고 의절한다. 엄혹한 식민지 시대를 살아내면서도 철저히 믿음을 지켰나간 추상같았던 기독교인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세 번째 인물은 경애의 부친이다. 그가 선택한 삶은 3.1운동에 투신했던 대다수의 기독교 지도자들과 그들의 가족이 겪었던 당시 상황을 사실적으로 그리고 있기 때문이다.

경애의 부친은 애국지사였다. 수원의 누구라면 알 만한 교역자일 뿐 아니라, 감옥 소식을 전할 때나 집행 정지로 나오게 될 때에 신문에 열 아문 줄이라도 기사가 날 만한 인물이었다.....삼사백 하던 재산은 모두 학교에 내놓으시고 소작인에게 탕감해 주어 버리시고.....삼 일 운동이 덜컥 나서 감옥에 들어갔다 나와서는 옥고로 거진 일년이나 앓아.....약이나 변변히 쓰라 생각하니 늙은 지사의 말로가 가없었다. (중략) 나죽은 뒤에도 이 두 모녀를 걷으뜨려 주시기를 염의없는 말이나마 부탁하오(p. 62-65)

6) 1935년 동아일보 창간 15주년 기념 공모에 당선된 심훈의 소설로 1935년 9월10일-1936년 2월15일까지 연재되었다. 이하 본문 인용은 텍스트(1998)의 쪽수이다.

이 늙은 부인은 손에 성경책 넣은 검은 형짚 주머니를 들고 다니는 전도부인이다.....또 누구나 그 놓인 처지에 따라서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된다는 말이니 만일에 자기 남편이 단 사오십 석의 유산만 남겨 주었던들(중략) 그러나 이 손주새끼는 외할머니로 하여금 교회에서 멀어지게 하였던 것이다.(p.78)

삼사백석의 재산을 학교에 기부할만한 재산가였던 경애 부친은 소작인들의 빚을 탕감하는 등 믿음과 행위가 일치하는 ‘수원의 누구라면 알만한 교역자’로서, 그의 수감생활은 ‘신문에 열 아문 줄이라도 기사가 날 만한’ 기독교계의 거물이었다. 그러나 이 늙은 애국지사의 말로는 ‘옥고로 거진 일년이나 앓으면서 약도 변변히 못쓰는 처지’로 몰락하여 절명했다. 남겨진 경애모녀의 삶은 더욱 비참하다.

남편 사후 전도부인이었던 경애모친은 후견인을 자처한 상훈이 딸을 유린, 첩이 된 딸의 자식을 기르게 되자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현실에 절망한 경애는 병화와 연합하여 사회주의자로 경도된다. ‘남편이 사오십 석의 유산만 남겨 주었던들’이라는 경애 모친의 원망에는 재산과 생명을 바친 대다수 민족 지도자들의 가족이 겪어낸 경제적 고통과 한(恨)의 세월이 묻어난다. 민족의 햇불을 들고 신앙을 지킨 결과가 병마와 빈곤으로 인한 가족해체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삼대>에는 염상섭의 냉소적인 시선으로 묘사된 개화 2세대 기독교 지도자의 모습이 3가지 인물유형으로 나타나지만 이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식민지에 항거하여 엄청난 대가를 치른 기독교 공동체의 희생의 결과와 그 가족의 후일담이 사실적으로 반영된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다음은 1930년대 기독교계가 주도한 농촌계몽의 현장이며 3세대 기독교인의 모습이 투영된 <상록수>이다. <상록수>는 농촌 계몽에 몰두하다 숨진 실제 인물 최용신(1909-1935)의 이야기를 모태로 쓰인 소설이어서 대체로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⁷⁾ 서사의 줄거리는 농촌계몽에 나선 박동혁과 채영신의 만남과 죽음을 다루고 있다. 동혁은 고향 한곡리에 내려가 농우회를 조직하여 공동 경작에 몰두하고, 영신은 YMCA의 파견 직원으로 청석골에 내려가 부녀회를 조직하고 기부금을 걷어 학교를 세워 아이들을 가르치나 과로로 인한 맹장염으로 죽는다는 내용이다.

영신이가 청석골로 내려가, 자리를 잡은 뒤에 야학의 교장 겸 소사의 일까지 겸쳐 하고 어린애들에게는 보모요, 부녀자에게는 지도자가 될 뿐 아니라, 교회의 관계로 전도부인 노릇도 하고, 간단한 병이면 의사 노릇까지 하여 왔다.(p.105) ‘나는 하나님이 이 동리에 특과

7) 당시 최용신은 협성신학교 학생 출신으로 YMCA 파견 직원이었다. 최용신의 활동은 『안산시사』 상, pp.424-460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 당시 현장이었던 경기도 화성 반월의 샘골교회(현 경기도 안산시 본오동 천곡교회)에 기념관이 설립되어 있다. 인근 지하철역(상록수역)과 행정구역(상록구)의 이름은 소설의 제목에서 비롯되었다.

하신 사도다!’하는 자존심과 자랑까지도 갖게 되었다. ‘왜 내가 정작 의술을 배우지 못했던가!’(p.130)

먼동이 흰하게 틀 때에 일어나 교회에 참례를 하고 낮에는 학원을 지을 기부금을 모집하러.....부인 친목계의 회원들과 원두밭을 매고 풀을 뽑다가 저녁을 먹고 나면 그 자리에 쓰러지고 싶은 것을 간신히 참고 예배당으로 간다. 가서는 서너 시간이나 아이들과 아귀다툼을 해가면서 글을 가르치고(중략)사업이 날로 늘어나고 모든 성적이 뜻밖으로 좋아질수록, 끼니때를 잇을 적도 있고 심지어는 머리로 빗지 못하기가 예사였다.(pp.128-129)

청석골의 남녀노소가 모두 예배당으로 모여들었다. 예배당 벽을 의지하고 송관 쪽으로 가설한 무대 좌우에는 남포를 켜고 검정 장막을 내려쳤다..... 손풍금 소리를 따라 공작새처럼 색색이 복색을 한 계집애들이 나와서 창가를 한다. “흥, 가르치구 볼게여.”- ‘내 딸은 언제 나오나’하고 마른 침을 삼키며 다음 순서를 기다린다. 아이들은 무대 위와 아래로 가지런히 벌려 서서 일제히 목청을 높인다.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내 동산”하고 제 이백십구 장 찬송가를 부른다.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하고 후렴을 부를 때, 아이들은 신이 나서 팔을 내저으며 발을 구르며 목청껏 소리를 지른다.(p.184)

소설 속에 묘사된 영신은 교회 예배당을 빌려 ‘야학의 교장 겸 소사.....전도부인 노릇도 하고, 간단한 병이면 의사노릇까지’하면서 밤낮으로 일하지만 지역 유지들의 무지와 일본 주재소의 방해로 속을 끓인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도 미루고 ‘끼니때를 잇을 적도 있고 심지어 머리로 빗지 못하기가 예사’로 말버둥을 친 결과 기부금을 모아 학교 설립에 마침내 성공한다. ‘남녀노소가 모두 예배당에 모여’서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이라는 찬송가를 부르는데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후렴에서 발을 구르며 목청껏 신나게 소리 지르는 아이들의 모습에서 민족의 장래에 미칠 기독교 정신의 힘과 승리의 모습을 증명하고 있다.

사실 소설 내적 현장은 당시 사실 그대로의 소설 외적 현장을 반영하고 있는데 동아. 조선일보와 YMCA를 중심으로 한 민족주의 계열 기독교 지도자들이 주도했던 문자보급운동(1929-1935)과 브나로드(1931-1935)의 현장이 투영된 것이기 때문이다. 서사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사회주의식 노동운동을 실천하려는 박동혁의 실패와 기독교적 희생으로 농촌을 살려낸 채영신의 성공이이다. 박동혁이 주도한 한국리 농우회가 폭력과 구금으로 물든 식민지 권력구조와 연결됨으로서 실패한 것에 반하여 청석골의 부녀회는 끝내 학교 설립에 성공하고 경제적 자립을 이뤄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사회주의적 민족주의를 표방한 한국리 농우회는 식민지와 결탁한 자본가의 음모로 뿔뿔이 붕괴, 해체되지만 기독교적 민족주의를 구심점 삼은 청석골은 영신의 죽음으로 완전한 공동체로 승화되었다는 점에서 작가에 의해 제시된 매우 중요한 관점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심 훈이 설정한 서사의

결말-동혁이 영신의 상록수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다짐-은 (결과론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 후 남북으로 나뉘어진 우리민족의 현재적 상태를 재고한다면 작가의 예언자적 시선까지 유추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시기적으로<무정>이 3.1운동 이전의 개화 과도 시기의 사회상을 그린 소설이라면 <삼대>와 <상록수>는 한국문학사에서 좌익 사회주의 계열과 우익 민족주의 계열로 분열되어 대립이 첨예했던 1920-1930년대의 사회상이 투영된 소설이다. 즉, <무정>에 투영된 기독교인의 윤리적 지도력이 3.1운동을 주도했으나 그 희생의 결과는 <삼대>에 나타난 것처럼 기독교 공동체의 붕괴로 이어졌다. 그러나 교회는 다시 브나로드 운동의 물결을 타고 농촌으로 달려갔고 그 헌신의 현장을 그린 것이 <상록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염상섭이 그린 부정적인 기독교인상과 심 훈이 그린 긍정적인 기독교인상은 모두 기독교인의 대 사회적 영향력을 반영하고 있다. 즉, <삼대>에 묘사된 지리멸렬한 기독교인들의 삶이 3.1운동을 주도했던 교회 공동체의 고난과 기독교인들의 희생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면, <상록수>는 민족의 자존감을 위해 교육과 경제적 자립에 매진했던 기독교인의 헌신을 그린 것이다. 그러므로 기독교회야말로 민족 암흑기였던 식민지시대에 재물과 생명을 쏟아 민족공동체를 섬김으로서 민족국가 회생을 위한 등불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3. 6.25 전쟁과 선민의식 : <내 잔이 넘치나이다>에 나타난 기독교의 형성

식민지 이후 우리민족에게 닥친 최대의 고난은 민족상잔의 현장이자 1950년 6.25 발발로 명시되는 국제 전쟁이었다. 이 때의 충격은 한국문학사에 ‘전후 소설’이라는 장르가 생길 만큼 우리민족의 내면에 깊은 상흔을 남긴 역사적 사건이며 임시 휴전상태라는 현실적 관점으로 볼 때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1983)는 정연희가 쓴 기독교 소설로 남대문 교회 전도사 맹의순이 겪은 개인사적 고난과 거제도 포로수용소에서의 헌신적인 포로 섬김, 석방 당일 새벽 26년 8개월로 마감한 그의 죽음을 다루고 있다⁸⁾. 실제 인물의 삶과 죽음에 근거한 전쟁터의 현장 기록인데 개인과 민족 앞에 ‘이유 없이 닥친 고난의 의미’에 대한 영적성찰을 바탕으로 ‘원수를 사랑하라’는 기독교 정신의 구현이 잘 드러나 있다.

기독교에서 고난의 의미를 구약적 관점으로 보면 대체로 ‘인간의 죄에 대한 심판 혹은 징벌’(삿 2:2-4)로 인식되지만 이스라엘이 망국의 고난을 겪은 후에는 스스로는 죄 없이, 다른 죄 있는 자를 대신하여 고난을 받는다는 ‘대상고난(代償苦難)’의 사상으로 발전했다. (사 53:4-6) 신약에서도 이유 없는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막 8:31, 히 2:10)에 참여하는

8) 텍스트는 정연희, 『내 잔이 넘치나이다』 (1996), 서울:홍성사 이며 이하 인용은 텍스트의 쪽수임.

의미로 부활의 생명과 영광에 참여(롬 8:17, 빌 3:10-11)로 인식된다. 따라서 신자, 또는 교회가 고난을 견디어 내는 것은 현재적으로 그리스도와 교제라는 강한 신앙이 주어지고, 장래에는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에 참여하는 희망이 주어지는 (고후 4:16-18, 뵤전 4:13) 종말신앙과 관련된다. 이 소설에는 이유 없는 고난이야말로 ‘죄에 대한 심판 혹은 징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대상고난’으로서 기독교적 종말론으로 연계되는 현상이 잘 포착되어 있다.

먼저 맹의순 자신의 언어(편지)와 친구 장형진(:실제 인물 박재훈 목사)의 증언으로 묘사된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성찰한 고난의 의미’를 찾아보고, 이어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기독교 정신의 구현을 위해 죽는 순간까지 ‘원수를 섬긴’ 맹의순의 행적을 찾아보기로 한다. 다음 인용들은 고난의 의미에 대한 기독교적 영성이 잘 드러난 부분이다.

(1) “이렇게 흘린 피가 순하게 땅속으로 스며들지 않을 거야. 피 값을 하고 말지. (중략) 세상이라는 곳에, 현실에 무엇이 있기에? 그냥 같이 가는 거야. 현실은 우리들의 발판인거야. 그리고 내 그림자야.....” “.....어떤 조건 어떤 환경에 있건 그것 전부를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 일인 것 같네. 내가 왜 이 처지에 있어야 하는지를 불평의 렌즈로 들여다 볼 게 아니라 의미의 렌즈로 보아야 할 거야.” (p.79) “절망은 하나님께 대한 월권이었어. 네가 보는 것, 이것이 인생의 전부겠느냐. 네가 듣고 네가 아는 것, 이것이 피조물이 존재하는 모습의 전부라고 생각하느냐. 네가 눈을 떴으되.....너는 우주를 한눈으로 볼 수 없거니와 알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은 극대와 극소의 극소를 다 지니신 만물의 주인이심을 몰랐더냐.....내가 무력함을 통탄한 것이 얼마나 큰 교만이었으며.....인간의 조건을 내어 걸었던 나 중심의 생각이었다는 것을 알기 시작했다네. 인간 삶의 기초는 조건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주신 약속이라는 것을 잠깐 잊었던 소행이었지. (pp.287-288)

(2) “이것은 무엇을 위한 준비입니까. 이 어둠이 어느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까. 앞에서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자 해선 안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이 두려움을 지워 버릴 수가 있는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셨지만, 지금의 이 어둠이 어떠한 선을 위해 필요한 것입니까. 그 선은 어떠한 선이 되겠습니까.”(중략)

“축복인줄 알아야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연단하시는 거디. 이 민족을 각성시키려는 거야. 우리는 이 전쟁을 감사해야 옳디. 다른 우방들도 그래. 우리는 이 경우를 보구 겸손해져야 해. 그러니까니 이복의 저 군대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몽둥이와 막대기야. 인생 몽둥이와 사람 막대기를 쓰신다 하셨거던? 이게 환란은 환란이디. 허지만 축복에 이르기 위

한 길인 줄 알아야 해.”(pp.182-184)

(1)은 맹의순이 개인사적 고난에 대한 의미를 풀어내는 과정이고 (2)는 6.25전쟁의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그는 불과 2-3년 사이에 어머니와 형제자매 4명의 가족을 차례로 잃고 오직 부자만이 남은 상황을 당하자 인간으로서 감내하기 힘든 내면의 고통을 이기기 위해 오랜 금식과 기도 끝에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이사야 55:8)는 성경 말씀을 붙잡고(p.287),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네가 보는 것, 네가 듣고, 네가 아는 것, 이것이 피조물이 존재하는 모습의 전부겠느냐.....하나님은 우주의 극대와 극소를 다 지니신 만물의 주인이심을 몰랐더냐.”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욕이 던진 공의에 대한 질문에 답하신 하나님의 말씀(욥기 38-39장)을 상기하면서 “절망은 하나님에 대한 월권”이며 “아픔을 담아낼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 그건 타고 나는 거라고 생각해.....자기 자신과의 싸움처럼 힘들고 무서운 게 없지.”(p.77)라는 말로 이유 없는 고난에 대한 의미를 재고(再考)한다. 그 결과 자신의 가족사적 불행이 ‘불평의 렌즈’가 아닌 ‘의미의 렌즈’로 바라보아야 하는 사건으로서 욥처럼 어떤 인간적 상황에서도 쓰러지지 않는 승리자가 되게 해주시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행위로 받아들인다. 기독교적 세계관에서 개인적 고난은 특별히 허락된 사람들에게 상급을 위한 전제 조건이면서 한편 하나님의 주권에 전적으로 순복하는 믿음의 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2)인용은 일제 식민지와 해방 후의 혼란, 전쟁으로 이어진 민족적 고난을 바라보는 기독교적 해석인데 맹의순은 “이렇게 흘린 피가 순하게 땅속으로 스며들지 않을 거야. 피 값을 하고 말지.”라고 자위하면서 “이 모든 것은 영원한 평화를 위해 가는 길의 과정”이라고 확신한다. 그에 의하면 어차피 세상이란 피 흘리는 일이 끊어질 수 없는 곳으로 실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발판’이지만 또한 ‘그림자’로서 영원한 세계의 모형에 불과하다. 때문에 ‘미워할 것도 짐작할 것도 없’는 곳이며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냥 같이 가는’ 곳이다. 그래서 ‘어떤 조건 어떤 환경에 있건 그것 전부를 받아들이는 일이 중요하’므로 일련의 상황들 역시 ‘불평의 렌즈로 볼 것이 아니라 의미의 렌즈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6.25전쟁의 발발사태는 우리 민족의 각성을 위한 ‘연단’이자 ‘환난’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축복에 이르게 되는 길”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이와 같은 맹의순의 믿음은 기독교의 종말론적 관점으로 이어지고 마침내 “신앙인에게 있어 미래란 신앙으로 극복된 저쪽의 세계에 있는 것일 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땅의 시간과 공간에 이어진 것은 아니다.”라는 결론에 이른다.(p.115) 따라서 사회의 구조적 악이나 전쟁까지도 종말을 위한 과정일 뿐이다. 다음은 거제도 포로수용소에 갇힌 맹의순이 바라본 6.25의 상황을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재해석하는 부분이다.

(1) “.....나는 포로요, 총 한번 쏴서 본일 없이, 그리고 적을 적으로 대면해 본 일도 없이 포로가 되어 있네.(중략) 나는 네게 내려지는 이 잔을 면할 길이 없음을 알았네.(p.272).....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믿음의 끈은 끊어지고밭고랑에 뉘어져 있던 아이의 주검에서도, 강가 절벽에 살점이 흩어져 널브러져 있던 이북 군인들의 주검에서도 나는 죄를 찾아 볼 수 없었네.....인간악이 그들에게 내리꽂힌 죽음을 보았을 뿐, 그들 자체는 죄의 원인이 아니라 희생이었네.(p.280).....이 땅, 이 나라 사람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뜻을 심어 지으셨을 터인데 이 좁은 땅에 이렇게 몇 겹씩 피 칠을 하게 하시고, 그 피가 말라붙을 겨를 없이 남의 나라 사람들의 피까지 덧없이 쏟아지게 하시다니, 이 땅이 장차 하나님께 어떻게 쓰일 땅인지 알 수가 없네.....”(p.282)

(2) “글쎄, 이 양의 우리로 우리들을 몰아넣으신 거라니까요. 여기 모인 이 사람들이 다 양떼거든요.” (중략)나는 우리가 만난 이 사건에서 주님의 숨결을 느꼈네.....낮익은 얼굴은 어두워지는 밤하늘에서 별이 돌아나듯 하나 둘 나타나기 시작했네.....세상에 이럴 수가, 그저 어이가 없고 억울하고 분하기도 하더니(중략) 주님은 내게로 온 이희진 군속에서 다시 한번 나에게 미소를 건네셨네.(p.301).....그들과의 첫 대면에서 나는 두 가지 기이한 느낌에 사로잡혔네. 그들이 총을 들고 쳐들어 온 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길을 따라온 양떼들로 보인 걸세.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자리까지 불러 오셨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었네. 그리고 나는 그들 앞에 수종(隨從)드는 나 자신의 모습을 환상으로 본 것일세. 무슨 당치 않는 망상일까 싶어서 떨쳐 버리려고 했으나 그 생각은 조금도 양보 없이 내 마음을 다스려 무릎을 꿇게 하는 것이었네. ‘주여 무슨 일이오이까’ 나는 그 생각에서 뒷걸음질 치고 싶었으나 조금도 움직일 수가 없었네. 누구인가 나를 꼭 붙들고 그 자리에서 떠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손에 붙들려 있는 느낌이었네.(p.324)

.....중공군 포로수용소 병사를 거쳐 온 날 밤. 나는 기도중에 놀랍고도 조심스러운 깨달음을 얻었네. 철의 장막 중국, 영적인 불모지대인 저 넓은 중국의 그 많은 인구,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확신이 생기는 것이었네.....친구여, 주님을 찬양하세. 나 같은 것에게 이 일을 맡겨 주신 주님의 은혜가 놀라울 뿐이네.....나는 이 사건을 통하여 소망의 빛이 열리는 것을 보기 시작했네. 이 전쟁을 통하여 우리에게 쏟아진 이 고난은 축복의 시작이 아니겠나. 나는 그것을 믿으며 주께 감사드리고 있네.(p.326).....철조망 속의 이 포로 수용소가 내게는 축복과 약속의 현장이라는 것을 믿고 감사하며 기뻐할 뿐이라네.(p.328)

맹의순은 북쪽 정보원으로 몰려 ‘총 한번 쏴서 본 일 없이’ 포로의 신분이 확정되지만 ‘내게 내려진 이 잔을 면할 길이 없음’을 깨닫게 되자 ‘포로된 자가 포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자’(p.278) 무릎을 꿇는다. 그 결과 자신이 만난 수많은 주검들의 의미가 ‘죄의 원인이 아니라 희생’제물이었음을 깨닫고, 그 희생 제물들의 값으로 ‘이 땅이 장차 하나님께 어떻게 쓰일 땅인지’를 기대하게 된다.

그에게 나타난 환상은 중공군 포로들이 ‘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길을 따라온 양떼들’이며 ‘누구인가 나를 꼭 붙들고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게 하는’ 손에 붙들려서 그들을 수종(隨從)들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다. 따라서 자신을 포로로 만드신 하나님의 의도를 확실하게 깨닫는다. 그리하여 의미의 눈으로 다시 바라본 포로수용소는 전쟁의 결과물로서 발생한 ‘절망의 마지막 집결지’(p.299)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양떼를 불러 모은 ‘축복과 약속의 현장’(p.328)이며 순례지인 ‘시온’(p.342)이고, 자신이 수용소안에 세운 광야교회야말로 온 세상의 사람을 다 담을 수 있는 ‘노아의 방주’(p.303)이다. 그 결과 맹의순이 통찰한 6.25전쟁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죄악을 심판하고 징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종말에 이 민족을 사용하시기 위한 축복의 방편이고 특별한 계획이 된다. 또한 우리 민족의 피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서 달려온 젊은이들의 수많은 주검 역시 이 땅을 정화하기 위해 드러진 희생 제물이라는 결론에 이른다.

따라서 이 소설은 ‘지금’, ‘여기’라는 현실적 토대위에 과거와 미래를 아우르며 전 인류의 역사를 바라보는 기독교적 초월성으로 개인과 민족의 의미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개인사적 고난과 민족적 고난의 현장에 신학적 사유 - ‘죄에 대한 심판 혹은 징벌’이 아닌 ‘대상고난’-를 부여함으로써 한국교회와 기독교인 개인들이 겪은 혼란과 고통, 상실감을 위로하는 한편 우리민족이야말로 기독교적 구원론을 위해 선택된 민족이자 희생양이라는 자긍심을 고취했다고 볼 수 있다.

4. 한국 경제부흥의 시발점 : <베데스다>에 나타난 가나안 농군학교의 정신

조성기의 <베데스다>(1988)는 1979년 가을 부마사태에서 10.26 박정희 시해사건, 다시 12.12에서 1980년 5.18 광주로 이어지는 우리 사회의 정치적 격변기의 와중에서 종교적 병리 현상으로 무너지는 한 가정의 파멸을 그린 소설이다. 서사의 외피를 둘러싼 시간적 배경은 1979년 가을에서 1980년 봄에 걸친 이야기지만 내면을 지배하는 시간적 배경은 1960년-1970년대 박정희 정권 전반에 걸친 이야기이다. 주지하다시피 이 시기는 우리나라가 오랜 농본사회에서 벗어나 산업 경제사회로의 진입이 이루어진 시기여서 사회구조가 급격히 전환된, 오늘날 우리가 이룩한 경제적 부흥의 기틀이 세워진 시기이기도 하다.

모든 사회적 변혁이 그러하듯 전환기의 혼란은 그동안 억제되었던 기존 체계의 온갖 병폐가 한꺼번에 드러남으로서 그동안 익숙하게 살아내던 삶의 방식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지는 현상이 발생한다. 그 결과 전환기를 통과하는 사람들은 삶의 방식이 무너지는 충격과

함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심리적 불안을 떨쳐버리려고 종교 행위에 몰입함으로써 현실의 상태에서부터 보호받으려는 경향을 나타낸다.

1960-1970년대의 한국 사회도 그러한 시기였다. 산업의 발달로 수많은 농촌의 인적 자원이 도시로 집단 이주했는데 그들의 고향 상실감은 6.25 실향민들의 상실감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정서적 고향을 갈구하게 되었고, 기존의 농촌사회는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야하는 상태가 되었다.

이와 같은 시대적 상황에 부응하여 교회는 두 가지 방향의 정신운동을 전개하여 이 문제를 해결했다. 하나는 교회 내적 갱신운동인 심령부흥회를 통하여 기독교가 보유한 역사적 초월성을 강조함으로써 교회가 영적 혹은 정서적 고향 공동체임을 각성시킨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가나안 농군학교’로 통칭되는 대 사회적 경제 자립운동이었다. 두 방향으로 표출된 영적 각성은 서로 긴밀히 연계되면서 상호 상승효과를 가져왔는데 전자의 결과는 매년 100만 명의 신자 증가로 나타난 기독교세의 폭발적 성장기(1960-1980)를 이뤄내었고(김병서, 1995, 14-40) 후자는 한국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실현을 가능케한 국가적 새마을운동으로 제도화, 수렴 되었다. 따라서 우리민족이 농업에서 산업으로 넘어가는 경제적 전환기를 성공적으로 넘을 수 있었던 힘이 기독교회의 초월적 영성과 지도력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다.

<베테스다>는 이 두 방향의 기독교 영성운동이 만나는 현장이다. 서사의 큰 줄거리를 살펴보면 이 두 가지 기독교 영성 운동을 심리적 배경으로, 박정희 정권의 종말적 사건을 시간적 배경으로 전개하면서 종교적 광신으로 정신병에 걸린 동생을 신유의 은사로 고치려다 함께 미쳐가는 형의 파멸을 그리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 소설은 박정희 정권의 비극적 붕괴와 기독교적 광신의 파멸을 동일시하는 조성기의 냉소적 시선이 만들어낸 작품이지만 이는 역설적으로 전쟁의 폐허로부터 경제 부흥의 초석을 이뤄낸 박정희 정권의 몰락이 가져올 미래적 불안과 어느새 한국사회의 정신적 구심점으로 부상한 기독교회의 영향력에 대한 염려(종교적 병리 현상)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종교와 문학의 관계라는 거시적 관점으로 보면 조성기의 작업은 사회적 현상의 기록물로서의 문학이 종교의 도그마(dogma)를 지적한 것에 불과하며 결과적으로는 기독교회를 위한 순기능(문학이 종교에 봉사한 것)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주목할 부분은 이 서사가 기독교회에서 비롯된 영성의 두 방향이 당시 우리 사회의 심리적 안정과 경제적 발전에 크게 기여했음을 정확하게 투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교회는 부흥회를 통하여 실향이주민들의 심리적 불안감을 치유하고 정치 격변기의 불안을 초월적 영성으로 메워주었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발원된 농촌 갱신운동은 전국적인 새마을 정신으로 제도화, 수용됨으로서 우리 경제 부흥의 정신적 지주이자 시발점이 되었기 때문이다. 다음 인용은 당시 교회의 역할이 신도들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경제, 교육,

문화 등 전반에 걸친 교육적 기능까지 담당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홍규는 길거리에 나붙은 포스터들을 통하여 말로만 듣던 가나안 농군학교의 김용기 장로가 한 교회에 부흥회를 인도하러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참 살길이 여기 있다>라는 제목의 책자를 교회 입구에서 팔길래 홍규는 그 책을 한권 사와서 단숨에 읽어버렸다. <옳구나. 바로 이것이로구나. 나는 그동안 엉뚱한 공부만 하고 있었구나.....이 민족을 살리는 길은 목사가 되는 것보다는 이러한 농촌 운동 정신 운동을 벌이는 것이야.>(p.79)

홍규는 집을 나설 때부터 김용기 장로나 가나안 학교의 직원들이 입는 국민복 차림의 골텐 옷을 입고 있었다.....흑으로 채우는 그 옷을 단정하게 입고 있는 홍규를 사람들이 흘긋 흘긋 돌아볼 때마다 홍규는 은근히 민족의 지도자라도 된 듯 마음속에 자부심이 차올랐다.(p.94)

주인공 홍규는 길거리의 ‘부흥회 포스터’에 이끌려 들어간 교회에서 가나안 농군학교의 교장 김용기 장로의 설교를 듣고 단번에 매료된다. 김장로의 설교는 농촌 가장의 고민을 해결하면서 ‘이 민족을 살리는 길은 목사가 되는 것보다 농촌 운동 정신을 벌이는 것’이라는 종교적 확신을 부여한다. 김장로의 책 <참 살길이 여기에 있다>에 제시된 제안- 농지를 개간하고 고구마, 딸기, 포도를 심고 양고라토끼를 기르면 먹고 사는 문제 하나는 거뜬히 해결된다(p.79)-은 농촌 경제를 살리는 구체적인 대안으로 떠오른다. 결국 주인공은 학업 진로를 바꾸어 가나안 농군학교에 입소하면서 김장로가 입는 국민복- ‘흑으로 채우는 그 옷을 단정하게 입고’ 나서는데 “은근히 민족의 지도자라도 된 듯 마음속에 자부심이 치올랐다.”라고 묘사된다. 교회 지도자와 민족 지도자와 동일시되는 경향은 교회가 가진 사회적 지도력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데 다음은 가나안 농군학교의 교육적 지향점이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 (1) 한강의 큰 물줄기 흘러내려/ 다 닿는 곳 가나안 한복판에 /
진리를 듣고 모였나니/ 내 민족의 새로운 살길/ 이곳에서 배우고 있다/
솟아나는 민족의 싹/ 우리 농군 학교/ 이 겨레의 새싹은 자라고 있다(p.80)

(2) 가나안 농군학교는 그냥 농군 학교가 아니었다. 농군 사관학교인 셈이었다. 모든 수업과 훈련이 완전히 군대식이었다. 군대를 필한 자를 자격 구비자로 한 것을 알 것도 같았다. 기상은 새벽 4시 반이었다. 일어나자마자 쏠살같이 연병장에 집합하여 일조점호를 받아야만 했다. 새벽기도회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되었는데 김용기 장로는 시간 시간마다 폐부를 찌르는 말들을 해 주었다. “온 겨레가 요구하는 인물이 되라. 한마디 말이 약속

수표를 대신하는 인물이 되라.....낮고 천한 직업이나 노동이라도 열등감을 갖지 않고 당당하게 일하는 인물이 되라. 실패를 거듭하더라도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인물이 되라.....”(pp.82-83)

(1)인용은 농군학교의 교가이고 (2)는 학생들의 일상생활을 그린 것이다. 교가의 내용과 김장로의 설교는 동일한 패턴으로 일치하는데 그 내용은 농사군(인)들도 “온 겨레가 요구하는 인물”이 되어 “내 민족의 새로운 살 길”을 열어야 한다는 것이다. 학교의 모든 수업과 훈련은 완전히 ‘군대식’이어서 하루의 시작은 새벽 4시의 30분에 (군인들처럼) 연병장에 집합하여 일조점호를 마치고 새벽기도회를 여는 것으로 시작된다. 따라서 가나안 농군 학교는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을 기르는 학교가 아니라 농사에 전념하는 군인을 기르는 “농군 사관학교인 셈이었다.”

가나안 농군운동은 사실 1930년대 식민지하 한국교회가 주도했던 브나로드 운동이 1970년대 새마을 운동으로 거듭 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신앙심과 애국심의 일치를 추구하는 가나안 개척정신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착에서 유래한 한국 기독교회의 전통적 특징이기도 한데 군인들의 병영생활을 방불케 하는 엄격한 훈련과정은 군부 출신 대통령 체제하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공존하기 힘든 정치와 종교가 민족중흥과 경제발전이라는 같은 목표를 공유하게 되면서 시대가 요구하는 민족주의적 구호를 기독교계가 적극적으로 수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베데스다>안에 투영된 가나안 농군학교의 실상은 1960-1970년대를 주도한 한국 경제부흥이 기독교 정신에서 비롯되었음을 증명하는 한편 당시 교회의 지도력이 동시대를 선도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5. 민주화 운동의 산실. 피난처 : <에릭직톤의 초상>에 나타난 교회의 역할

1980년대의 우리사회는 박정희 정권 20년에 이어 들어선 전두환. 노태우 군부정권이 통치한 10년의 시대이다. 1980년 5.18로 집권한 정권의 특성과 연계된 정치적 압력이 최고조에 이르렀으나 1987년 6.29로 상징되는 국민적 저항에 부딪혀 마침내 30년간 이어져온 군부정치의 굴레를 벗어나 민주화의 결실을 이뤄낸 시기였다. 이승우의 <에릭직톤의 초상>(1990)⁹⁾는 당시 민주화 운동의 후견인이자 정신적 주체였던 한국교회의 모습이 내적 관찰자의 시선으로 그려져 있다.

서사의 개요는 신학교 학장인 정상훈 교수와 그의 제자들의 종교적 신념과 그에 따른 대

9) 본 텍스트는 1981년 발표되었던 <에릭직톤의 초상 1>과 1989년 발표한 <에릭직톤의 초상 2>를 수정, 보완하여 장편소설로 재발표한 것(이승우, 1990, 서울:살림)이다. ‘에릭직톤’은 그리스 신화에서 Ceres여신의 신목(神木)을 베어버린 벌로 굶주려 죽은 인물이다. 이하 인용면수는 텍스트의 면수이다.

사회적 행로를 그리고 있다. 다시 말하면 개체적이고 실존적인 사고와 신 중심의 폐쇄적인 신념체계에 기울어져 있던 젊은 신학도들이 1980년대 폭압적인 정치상황에서 참된 기독교 정신의 실현을 고민하다가 차츰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범위로 시야를 확보해 나가면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사회운동을 전개해나간다는 이야기이다. 등장인물은 정교수와 제자 신태혁, 딸 혜령, 병욱의 후배이자 혜령의 약혼자였던 최형석인데 정교수의 제자인 신문기자 ‘나’(김병욱)의 1인칭 서술로 이루어진 대략의 줄거리는 이렇다. -목회의 길을 포기한 ‘나’대신 혜령과 독일 유학을 떠났던 최형석은 신 중심 사고의 전통 신학에 항거하여 학업을 포기, 교황 암살을 시도했으나 실패하고 의문사한 시체로 발견된다. 교단 중직 교역자의 이중적 행태에 분노한 신태혁은 해당 목사의 교회를 방화하여 퇴학을 당하자 도시 산업선교의 길로 나선 후 수배자가 된다. 최형석에 실망한 혜령은 귀국 후 수녀가 되지만 수녀원에 숨었던 신태혁이 체포되는 과정을 겪으면서 사회적 폭력에 눈뜬다. 그녀는 서원을 포기, 고아원 보모가 되어 또 다른 기독교 정신의 실현을 꿈꾼다. 신문사에서 해직된 나는 정교수를 찾아갔다가 학장실을 점거한 신학생들의 폭력 현장을 목격하며 새로운 진로를 모색한다.- 실제 1980년대 한국적 정치 상황은 수녀원과 신학교라는 종교의 영역까지 침범했는데 따라서 서사에 묘사된 인물들의 선택에는 모든 억압으로부터의 자유를 선언하는 기독교 정신으로부터 시작되는 교회의 고뇌와 기독교인의 대 사회참여 행동의 양상이 잘 나타나있다.

특히 이 소설에는 국가, 사회적 폭력에 대한 두 가지 신학적 관점으로 갈등하는 교회들의 입장이 잘 투영되어 있는데 하나는 신 중심 사고로 수직관계의 회복을 주장하는 전통적인 보수신학의 입장이고 다른 하나는 ‘지금 여기’에서의 수평적 관계회복을 주장하는 본회퍼(1906-1945)의 세속신학의 관점이었다. 다음은 서사에 묘사된 신학적 관점의 충돌이 나타난 부분이다.

(1) “.....인간이 인간에 대한 수평적 폭력은 그 이전에 신과 인간 사이의 수직적 폭력을 반드시 전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다는 사실의 발견은 매우 중요합니다. 수직이 전제되지 않는 수평을 부르짖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절대자와의 수직관계를 무시하고 인간 사이의 평등한 관계만을 기획하는 것은.....환상에 불과합니다. 신을 거론하지 않는 모든 휴머니즘은 허무주의라는 기형의 자식밖에 낳지 못할 것이며 절망이라는 기항지(寄港地)가 그들의 중국일 것입니다.”(p.128)

(2) “결과가 수단을 정당화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결과가 역사를 만들어 낸다는 것 또한 진실.....중요한 것은 언제나 지금 여기이고.....기독교적인 삶은 양심의 요구에 따라 자진해서 타인의 고난 곳에 동참함으로써, 그들을 위해 일할 때만 가능해진다는 점

을.....” “양심의 요구라고?.....지극히 비기독교적이라는 이유로 본회퍼가 단호하게 거부한 실존주의를 그의 중심적인 이론이나 되는 것처럼 잘못 해석하고 있어. 행동에서 사상을 유추한다는 것은 극히 위험한 일.....전혀 사상을 가지지 못한 사람도 행동을 한다.....기독교가 이원론이라는 구실은 될 수 없네. 이 분리는 하나님의 의도나 창조 질서가 아니라 인간의 실존적인 현실일 뿐이니까.”(pp.52-53)

(1)에서 정교수가 주장하는 ‘폭력으로부터의 자유’는 보수신학의 전통적 입장을 대변한다. 그는 폭력의 기원을 창세기 선악과 사건에서 찾는다. 선악과 사건이야말로 신을 향해 인간이 가한 최초의 수직적 폭력이며 그 결과 신의 인간에 대한 수직적 폭력(심판)을 불러왔고,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인간이 인간에게 행한 최초의 수평적 폭력은 신이 인간에게 가하는 수직적 폭력에서 전제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모든 폭력은 인간과 절대자와의 수직이 전제되지 않는 수평을 주장할 때 문제가 발생하며 따라서 인간 휴머니즘의 마지막은 절망과 허무주의로 귀결된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상황과 규범 사이-본회퍼의 경우>란 논문을 쓴 ‘나’는 (2)에서 ‘중요한 것은 언제나 지금 여기’이며 “기독교적 삶은 양심의 요구에 따라 자진해서 타인의 고난에 동참함으로써, 그들을 위해 일할 때만 가능해진다.”고 강변한다. 진보진영의 입장을 대변하는 ‘나’의 주장은 “행동에서 사상을 유추한다는 것은 극히 위험한 일”이라는 정교수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일반 사회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는다. 다음 인용들은 두 입장에 대한 대내외적 반응이다.

(1) 우리는 무소부재한 이놈의 정치권력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을 어딘가에 축적해 놓아야 한다.....그런데 그 힘은 전혀 질이 다른 성질의 것이 아니면 불가능해.....전혀 다른 기반에 뿌리내린 절대적인 권위.....우리는 가이사에게만이 아니라, 가이사와는 질적으로 다른 어떤 권위를 향해 우리 자신을 바칠 수 있어야.....이 시대에 내가 갑자기 종교를 요청하는 것은 그것 때문이야.(p.260) “이 땅에는 아직 의미를 부여받을 수 있는 곳이라곤 종교 말고는 없지 않나. 내게는 거기가 마지막 보루처럼 느껴지네. 이 시대를 위해서도 그렇고, 인간의 이름을 훼손하지 않고 유지하기 위해서도 그렇고.....”(p.264)

(2) “저들에게는 돌을 던진 대상이 필요하네.....학장의 자리는, 적어도 오늘과 같은 시대에는 던지는 돌을 맞아주어야 하는 자리임을 깨닫고 있네. 돌을 맞으면서도 누군가 지켜내지 않으면 안 되는 자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지.”.....그는 학장실을 점거한 학생들에 대해 응분의 조치를 취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다.(중략) 그 순간, 정교수에 대해 설명할 수 없는 신뢰의 감정이 나의 의식 깊은 곳으로부터 솟구치는 것을 느끼면서 내가 왜 이곳

을 찾아왔는지를 알 것 같은 심정이 되어갔다 (p.266)

(1)은 동료인 최기자가 ‘나’에게 목회의 길을 권하는 부분인데 시대가 종교를 요구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2)는 학장실을 점거한 신학생들의 폭력행위를 ‘나’에게 설명하는 정교수의 관점이다. (1)에 의하면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가이사와는 질적으로 다른’ 또 다른 ‘무소부재한 정치권력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들은 세속권력으로 부터의 피난처이자 대칭점으로서의 “전혀 다른 기반에 뿌리내린 절대적인 권위”이자 ‘우리 자신을 바칠 수 있’는 권위로서 ‘인간의 이름을 훼손하지 않고 유지하기 위’한 “마지막 보루”로서 종교를 요청한다. 그러므로 ‘지금 여기’라는 즉각적이고 현실적인 토대위에 “양심의 요구에 따라 자진해서 타인의 고난에 동참”하며 “이들(고난당하는 자들)을 위해 일할 때만 (기독교적인 삶이)가능해진다.” 는 진보 신학적 관점이야말로 시대의 요청에 꼭 맞는 응답으로서 “민주화 운동의 산실로서의 교회”의 역할을 담당하고 일반 정치운동권으로부터 환영받은 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편 (2)는 진보의 영향을 받은 교회공동체 구성원들로부터 도전받는 보수신학이 처한 상황을 보여준다. 정교수는 제자들로부터 학장실을 점거 당하자 “저들에게는 돌을 던진 대상이 필요하네.....” 라고 그들이 주장하는 시대적 요구를 수납. 이해하면서도 그러나 ‘누군가 지켜내지 않으면 안 되는’권위를 지켜내기 위해서 ‘적어도 오늘과 같은 시대에는 던지는 돌을 맞아주어야 하는’ 역할을 감내하기로 작정한다.

정교수의 결연하고 흔들림 없는 태도는 변할 수 없는 절대 권위에 대한 수호이자 시공간을 넘는 기독교 신앙의 초월성과 연결되는 부분이면서 전통 보수신앙에 내재한 힘이 되어 사람들로 하여금 ‘의식 깊은 곳으로부터’ ‘설명할 수 없는 신뢰의 감정’을 솟구쳐 올리는 기독교적 휴머니즘의 기반이 된다. 따라서 “내가 왜 이곳을 찾아왔는지 알 것 같은 심정이 되어갔다.”라는 화자의 독백은 1980년대 시대상황에서 보수신학의 전통이 담당한 “피난처로서의 교회”의 역할을 충분히 보여준다고 하겠다.

III. 결론

지금까지 한국 현대 소설 속에 투영된 기독교회와 기독교인들의 모습 속에서 한국 사회에 미친 기독교의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한국 최초 장편소설인 <무정>에 나타난 기독교인들의 모습은 개화 1세대로서 이들이 우리사회에 끼친 영향력은 사회 윤리적 지도력이었다. 개화기 이전의 한국(조선)은 유교사상에 근거한 남녀노소와 반상의 차별로 정리되는 집단적 수직사회였으나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개인의 능력과 존엄성을 존중하고 만인 평등을 주장하는 수평적 기독교 정신은 여성과 천민의 해방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

정>에 묘사된 기독교인들의 윤리관은 특히 신문소설이 당대에 미치는 폭발적 영향력으로 유교문화의 혼례전통 -적서(嫡庶)와 반상(班常)의 구별, 가문과 가문의 결합 및 삼종지도(三從之道)로 요약되는 여성의 굴레-를 타파했는데 이는 근대 최초의 문화적 충격이랄 수 있다. 역시 신문 연재소설이었던 <삼대>와 <상록수>는 1920-1930년대 기독교인들의 대사회적 영향력이 투영된 소설이다. <삼대>에 부정적으로 묘사된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3.1운동에 앞장섰다가 멸문의 화를 겪은 개화 2세대 가족이 겪어낸 불행한 후일담이었다면 <상록수>에 나타난 기독교인들은 브나로드 운동을 주도했던 진취적인 기독교 지도자들의 모습으로 농촌 헌신과 희생의 현장을 그리고 있다. 죽음으로 농촌사랑을 증명한 실제 주인공의 이야기는 1960년대 영화화되어 새마을 정신의 근간으로 홍보되었는데 1930년대 기독교계의 “브나로드 운동”은 세대를 건너 <베테스다>에 묘사된 김용기 장로의 “가나안 농군 운동”으로 되살아나 1970-1980년대를 주도한 새마을 운동의 근간이 됨으로서 민족 경제자립의 기초를 닦은 한국 교회의 저력을 증명하고 있다. 따라서 1979년 10.26에서 1980년 5.18로 이어지는 정치 사회적 불안기의 기독교적 종교 병리현상을 고발한 <베테스다>는 역설적으로 기독교가 심령부흥회를 통하여 사회적 불안을 흡수하고 민족 경제자립에 기여한 영향력을 투영하고 있다. 한편 <내 잔이 넘치나이다>는 6.25전쟁의 와중에 거제도 포로수용소에서 중공군 포로들을 섬기다 과로로 죽은 실제 인물 맹의순 전도사의 이야기이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기독교의 명제를 실천하면서 ‘고난에 대한 의미’에 대한 기독교적 영성을 제공한 이 베스트셀러는 기독교인들의 선민의식과 자긍심을 높이고 1990년대 이후 한국교회의 선교소명의 비전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에릭직톤의 초상>은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의 한가운데 한국교회가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소설이다. 당시 한국교회는 신 중심 수직관계의 회복을 통한 사회 정화를 주장하는 보수진영과 수평관계의 인간회복과 ‘지금 여기’를 강조하는 진보진영이라는 두 가지 방향의 신학적 관점을 보유하고 있었다. 또한 두 진영의 신학적 충돌과 합의가 합의되어 있는데 작품외적 결과론으로 말하자면 신학적 입장 차이는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한국교회의 폭발적 부흥과 민주정치 쟁취라는 두 가지 성공을 한번에 거두는 결과를 낳았다. 보수진영이 교회 심령 부흥회를 통하여 매년 100만의 신도를 얻어 한국교회 사상 두 번째 교회 성장이라는 성공을 이루어냈다면 진보진영은 도시산업선교를 시작으로 민주화 운동의 주체세력이 되어 군부 종식의 승리를 얻어냄으로서 정의구현에 앞장서는 기독교 정신의 사회적 영향력을 확고히 증명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난 120여 년 동안 한국 사회의 발전에는 변혁의 고비마다 기독교회의 윤리적, 영적 지도력과 함께 교회 공동체의 민족을 위한 희생과 헌신에 절대적으로 의지해 왔음이 한국 현대소설 속에 투영된 모습을 통해서도 충분히 입증되어지고 있다.

참고 문헌

- 기예도, (2004), 『한국 소설에 표현된 기독교인의 모습』, 숭실대기독교학대학원 석사논문
- , (1010), 『1980년대 한국소설에 나타난 기독교적 담론 양상』, 숭실대 박사논문
- 김남천, (1933.5), 『신계단』, <문화적 공작에 대한 약간의 詩感>, PP.82-83
- 김병서, (1995), 『한국사회와 개신교』, 서울: 한울 아카데미
- 심 훈, (1998), 『상록수』, 한국문학대표선집 9, 서울: 도서출판 문학사상사
- 안산시사 편집위원회, (1999) 『안산시사』 上, pp.424-460
- 임 화, (1933.6). 『신계단』, <동맹 반종교 운동과 종교박해>, p.73
- 이상설, (1999), 『기독교소설사』, 서울: 양문각
- 이광수, (1995), 『무정 外』, 한국소설문학대계 2, 서울: 두산동아
- 이성호 편, (1982), 『성서대사전』, 서울: 성지사
- 이승우, (1990), 『에릭직톤의 초상』, 서울: 살림
- 염상섭, (1987), 『염상섭전집 4-三代』, 서울: 민음사
- 정연희, (1996), 『내 잔이 넘치나이다』, 서울: 홍성사
- 조성기, (1988), 『베테스다』, 서울: 고려원
- 현길언 (2002), 『문학과 성경』, 서울: 한양대학교 출판부.
- 한승옥 (1995), 『한국 현대 소설과 사상』, 서울: 집문당